



오는 7월20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 황영성 화백.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이 전시중단을 요구한 이상호 작가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박정희기념재단, 비엔날레 전시중단 요구 논란 이상호 '일제를 빛낸 사람들' "박정희 폄하 악의적 선전물" 재단 "전시 중단 없다"... 예술인들 "예술탄압 중단하라" 성명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의 전시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비엔날레 등에 따르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최근 광주비엔날레에 전시중인 이상호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417×245cm)이 '악의적 정치 선전물'이라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작품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과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수록자 등 92명을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작가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걸개그림 '백두의 산지락 아래 받아오는 새 날이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특정 단체의 중단 요구와 관계없이 비엔날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전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전시 내용은 예술감독의 고유 영역이고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전시 중단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 260명은 21일 '박정희 기념재단은 예술표현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친일 단죄 작품은 역사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예술적 활동이다"며 "세계적인 광주비엔날레 미술축제를 탄압하지 말고 전시 중단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여러 감정 담겨있어”

광주 시민들의 휴식적인 무각사는 지금 봄기운이 가득하다. 북카페와 함께 자리한 로터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로터스 갤러리가 올 첫 전시로 황영성 화백을 초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3일부터 7월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소와 가족 이야기'다. 황 화백은 무각사 정학 주지 스님과 인연으로 '반야심경'과 '전수천안도'를 무각사에 봉안하기도 했다. 올해는 마침 '소의 해'이기도 해 다양한 소의 이야기를 만나는 건 흥미롭다.

이번 전시에는 200호 대작부터 소품까지 80여점이 나왔다. 초기 화풍을 볼 수 있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그린 작품들로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올해 팔순을 맞은 황 화백은 "코로나 19로 외출이 거의 없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처음으로 선보이는 5·18 관련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소'와 '가족'은 작가가 수십년간 천착해 온 소재다. "사람, 동물, 식물 등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가족이다"라는 생각, "말도 못하고 크게 울지도 않는 소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듯 하다"는 마음으로 작업해왔다. 같은 소재지만 추상성이 가미되고 다양한 색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와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1층 전시실은 화사한 느낌의 소품 위주로 구성했다. 최근작들은 강렬한 느낌의 검은소 대신 흰소가 중심이 됐고, 밝은 색감과 가족들의 모습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건너지는 동지애를 느끼게 된다. 흰소가 주인공이 되다보니, 작품을 부각하기 위해 다양한 바탕색을 넣었고, 자연스레 '색의 스펙트럼의 향연'이 펼쳐졌다.

황영성 '소와 가족 이야기' 전
23일~7월20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5·18 관련 작품도 처음 선보여

찰에서 만나는 나한상의 또 다른 형태일 겁니다. 저에게 영감을 준 중심사의 오백 나한상이 다 다른 모습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들은 모두 소중하지요."

지하 1층 전시장은 푸른 대나무와 이끼 잔디가 어우러진 정원과 연결돼 있어 매력적이다. 이 곳에는 대형 작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5·18을 소재로 작업한 '5·18 40년의 기억(배고픈다리 밑의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오월 관련 작품을 그린 적이 없었던 황 화백은 5·18 40주기였던 지난해 작가로서, 또 광주시민으로서 늘 품고 있었던 오월에 관한 내용을 풀어보려 마음 먹었다. 200호크기에 검은색과 회색을 주조로 한 작품은 배고픈 다리 인근 아파트에 살며 직접 겪었던 이야기와 도청 분수대, 시위군중 등의 이야기가 함께 담겼다.

"40년의 이야기를 풀어내보려 싶었죠. 5월의 역사를 어떻게든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 자신을 던져 시위하는 사람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 도청 분수대의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추상성이 돋보이는 '소의 침묵' 시리즈와 캔버스 대신 우연히 발견한 '나무도마'에 작업한 작품들도 이색적이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에는 정원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다. 또 전시장을 찾은 길에 무각사 설립전에 걸린 2000호 규모의 '반야심경' 작품을 감상해도 좋을 듯하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0호 4점이 한꺼번에 걸린 '소와 사람들' 연작은 황 화백 본인이 이번 전시작 중 가장 마음에 든다고 밝힌 작품이다. 강렬한 검은소와 흰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 등 다양한 바탕색이 어우러진 작품은 '함께' 걸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의 눈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요. 그 눈엔 슬픔, 기쁨 등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해요. 꼭 우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의 모습은 참 대단하지요. 화폭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은 사

'5·18 40년의 기억(배고픈다리 밑의 이야기)'

한국민족극협회 이사장에 손재오 극단갯돌 연출가 선출

(사)한국민족극협회는 지난 17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제 10대 이사장에 손재오(사진) 극단갯돌 상임연출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손 선임 이사장은 2011년 민족협에서 주관하는 민족광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연출한 '자스민 광주'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Broad Way Baby 5스타에 선정됐다.

현재 그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신안 국제문예페스타 총감독을 겸임하고 있다.

손 선임 이사장은 "안으로는 회원 단체들의 공연활동성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밖으로는 다양한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족협은 민족극 운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단체로 전국 40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민족극한마당과 마당극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대 이사장으로는 채희완(민족미학연구소장), 임진택(국악인), 김명곤(전 문화부 장관), 김장우(전 경북대 교수) 등이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02171@cu.co.kr ☎ 1644-7990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p>관내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관내지점
--	--	--	--	--	--

관내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